

# “민생과 통합을 토대로 정권창출 나서겠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국 일간지 첫 인터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되고 있다. 보수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를 담아내고 실현시킬 아권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추 대표는 친문(친 문재인) 지도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주류 진영과의 소통 등을 통해 당내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나아가 제3당인 국민의당은 물론 야권 성향의 정의 세력과의 정권 교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같지 않은 호남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다. 아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지지가 없다면 더민주의 정권 교체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아권 지지층 결집을 넘어 여권에서 이탈한 민심까지 묶어내기 위해서는 정권 창출의 강력한 비전과 역량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 아권의 분열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권창출을 위해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뜻’의 고통스러운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추 대표는 과거 척박한 상황에서도 정권 교체를 이뤘던 시절을 되새기며 이러한 절박감과 절실함을 토대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권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8일 전국 일간지 신문 최초로 이뤄진 인터뷰는 국회 본청 더민주 대표실에서 1시간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인터뷰=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지난 95년 DJ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 21년 만에 제1야당 대표가 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을 강조한 DJ의 유지가 새롭다. 당시 정계에 입문할 때도 대선이 1년 몇 개월 남았고 대표가 된 지금도 시기가 비슷하다. 당시에는 정말 말 할 수 없이 척박한 토양이었지만 모두가 똘똘 뭉쳐 기적과도 같은 정권교체를 이뤘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호조조건이다. DJ 정신과 당시의 절박감을 토대로 정권 창출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게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논란이 일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용서와 화해, 통합’은 DJ 정신의 근간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도 이런 취지에서 추진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역사에 참회하고 화해와 통합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을 주문할 생각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도 광주 학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가.

▲DJ는 그의 지팡이를 정적에 휘두르지 않고 누우치고 일으켜 세우는데 썼다. 광주 학살은 명백한 범죄이자 역사고 실체다. 가해 당사자가 자신의 범죄와 과오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고 일깨워줘야 한다. 누우치고 사죄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번 방문이 이뤄진다면 광주 5·18 묘역에 함께 참배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혼자 5·18 묘역을 가기 어렵다면 함께 동행,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갈 생각이었다.

-예방을 취소한 이유는.

▲제가 추진한 일정인데 당내 의견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모아짐에 따라 대표로서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친문 지도부라는 지적이다.

▲대표인 저부터 친문이 아니다. 지난 대표 경선 당시 친문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21년 정치기간 동안 통합의 정치를 해온 저를 믿고 지지를 한 것이다. 한 번도 계파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당 대표 선거 결과는 통합과 민생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해달라는 당원들의 폭 넓은 지지

였다.

-당내 통합의 방법은.

▲특정 후보나 계파에 대한 온정주의는 없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이기는 후보를 만들 것이다. 적극

“

전두환 예방하려다 취소

통합의 DJ정신 실천하러 추진

친문세력 지지 받았지만

한번도 계파정치 한적 없어

반기문 총장 역사에 남을 분

유엔서 유종의 미 거뒀으면

”

적인 소통을 통해 과거 두 차례의 정권 창출을 이뤘을 때처럼 당이 한 몸이 되도록 하겠다.

-공정한 경선관리 방법은.

▲앞으로 친문, 비문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공정한 경선 규칙을 만들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의견도 취할 것이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 정당 사상 최초로 중앙선관위에 경선을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대표 경선에서 친문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당내 대선 주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 것이다. 당헌·당규와 당내 논의를 받



아들여 경선 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경선 논란이 있다.

▲당헌·당규에 그렇게 돼있다. 존중해야 하지만 철칙은 아니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호남 민심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다.

▲한 마디로 ‘애가 탄다’, ‘속 터진다’로 압축할 수 있겠다. 아당 너희들끼리 분탕질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집안 싸움하다가 쪼개지더니 싸움질하다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하는 것 아니냐는 근심이 크다. 민생과 통합을 두 축으로 수권정당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호남 민심의 지지를 회복해 가겠다.

-광주·전남지역 원외 위원장들의 당직 발탁은.

▲주요 당직의 인수인계과정에 있다. 광주·전남에 현역이 한 명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에 자리를 마련하겠다.

-호남 표심의 결집 없이도 호남에서 선전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인식도 있다.

▲정치는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을 다해서 호남을 대해야 정권 창출의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 광주와 전남, 호남은 더민주의 심장이다. 심장의 박동이 힘차게 뛰어야지 다른 곳에도 산소가 공급된다.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필

요하다.

-대선 3자 대결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3자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 대선에서 양자 대결 구도가 유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후보단일화 및 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진심과 전력을 다하지 않고 갈나무 밑에서 갈 떨어지길 바라는 안일한 자세는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과 연립정부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우선시키고 싶지 않다. 내부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과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등을 중심으로 제3자대론이 나오고 있다.

▲나는 더민주의 대표다.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구심점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적 책무다. 제3자대론 등에 한 눈 팔 거를 없다.

-순하규 전 대표의 당 복귀 가능성은 어떤가.

▲순 전 대표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전당대회 끝나고 순 전 대표에게 전화 드려 대선 출마 결심하시면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했다. 당으로 복귀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반기문 유엔총장을 새누리당이 대선 주자로 영입하는데 대한 견해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분이다. 유엔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유엔과 우리나라의 체면을 위해서도 대선 출마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새누리당 서진 정책에 대한 입장.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정치적 수사는 의미가 없다.

-영남 민심의 변화가 있는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은 10년 이상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이러한 더민주의 진심을 토대로 영남 민심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적 요구는 어떻게 보나.

▲민생이다. 격차 해소, 공정성장 등의 구호가 있지만 결국 민생이다. 과거 우리가 창출한 정권의 명칭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였다. 정권 창출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는 민생 정권, 민생 정부가 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에 맞는 민생 처방전을 준비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사드는 궁극적으로 북 핵을 막지 못하고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친다.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서두르기 보다는 의원총회 등 절차를 밟아 당론을 정하겠다. 그동안 국민에게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지역면에 요청드릴 말이 있다면.

▲호남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지금까지 민생이 어렵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시기가 없었다. 이런 시기에 아권 분열은 역사적 비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호남 민심이 아권에 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합치려는 통합의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b>5% 정액제</b>	balcony확장 <b>무료시공</b>
중도금 <b>무이자</b>	전세대 <b>알파공간</b>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